

남·북한 문학 분야의 쟁점들

# 청산되지 못한 좌우 대립 규명

김재홍

경희대 국문과 교수

“ 통일시대의 문학은 다시 좌·우문학, 즉 문학의 정치성·이념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계급문학과 문학의 자율성·예술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순수문학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상 분단의 비극은 이러한 삶의 두 속성, 문학의 근본이치가 정당하게 구현되지 못한 데서 오는 온갖 모순과 불합리를 의미한다. ”

우리 민족에게 통일시대는 언제 실현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문학사에 있어 통일문학시대는 과연 언제쯤 열려갈 수 있을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은 선부른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역사란 어느 시대에나 변화해 왔고 또 변해갈 것이 분명하기에 그러한 전망에 관해 논의해 보는 일은 바람직한 역사 전개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필요한 일일 수 있다.

**일제강점기·해방기의 양상에서 단서**

우리 근대문학사 전개만 해도 그렇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날이/이 못숨이 끊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라. 이면,/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드리 받아 올리오리다/두개골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남으리까(심훈 <그날이 오면> 앞 연)”라고 일제 강점하 궁핍한 현실 속에서 목놓아 외쳤기에 해방이 온 것 아닌가. 그러기에 지금 이 분단시대에도 또다시 “그날”이 올 것을 예감하고 다양한 형식의 논의와 갈망을 펼쳐가는 데서 통일의 물꼬가 트일 것이 분명하다.

통일후 한국문학의 위상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거울이다. 과거는 오늘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자 힘이다. 통일시대를 예감하기 위해서는 분단 이전 우리 문학의 양상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의 문학과 해방기의 문학양상이 단서를 제공한다.

일제 강점기 우리문학은 전통문학의 질서체계가 붕괴되면서 일본을 통한 서구문학이 유입되어 새로운 내용의 근대문학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전통지향성과 모더니즘지향성, 저항적 특성과 순수예술성향이 서로 길항하면서 우리문학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실험하는 시기다. 특히 일제에 항거하는 방법으로서 민족문학이 제기되고 그 실천 방안을 두고 좌·우문학의 대립이 심화되는 시기였다. 조선심 부활을 강조하는 우파의 민족주의 문학과 노동투쟁과 계급 해방을 주장하는 계급주의 문학과 노선의 대립과 갈등이 그 중심내용이다. 이러한 대립은 일제의 전시체제로 인해 잠복기에 접어들고 마침내 해방을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에 접어든다. 해방기 문학은 다시 20~30년대의 좌·우대립으로 첨예하게 되고, 남북 단독정권 수립과 6·25로 인해 남북문학으로 새로운 대치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통일시대의 문학은 어떻게 다시 좌·우문학, 즉 문학의 정치성·이념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계급문학과 문학의 자율성·예술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순수문학이 혼류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의 문학은 정치적·이념적일수록 훌륭한 문학이며 남의 문학은 오랫동안 정치와 무관할수록 예술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남쪽에서 4·19혁명 이후 특히 70~80년대에 문학의 사회적, 정치성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강조하는 민족문학이 대세를 이룸으로써 그러한 극단적인 대립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또한 북의 문학도 80~90년대 들어서 서정성, 예술성이 신장되어 남북 문학간의 오랜 이질화가 차츰 공통분모를 확대해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상황변화라 할 것이다. 실상, 삶이 ‘홀로’로서 개인 의식과 ‘함께’로서 공동체 의식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문학이 사상성과 예술성, 정치성과 순수성이 서로 얼크러지고 변증법적으로 종합·고양되는 데서 바람직한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남북, 어느 쪽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든간에 통일된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실상 분단의 비극이란 바로 이러한 삶의 두 속성 또는 문학의 근본 이치가 정당하게 구현되지 못한 데서 오는 온갖 종류의 모순과 불합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분단상황은 극도의 대항논리 또는 적개심을

노정함으로써 이들 문학의 근본적인 두 속성과 원리가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고 조정되고 화해함으로써 변증법적 극복의 계기를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남쪽에서만 알고 있거나 논의되는 시인·작가가 따로 있으며, 역으로 북쪽에서만 통용되는 시인·작가가 따로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이러한 분단비극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통일시대에는 이러한 남북문학이 자연스럽게 혼류하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문학과, 또 가치있는 문학의 길인가가 토의·토론 돼야 한다. 또한 이념대립과 정치현실이 냉전논리로 인해 매몰되거나 실종되어 버린 작가·작품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발굴과 조명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제하 간행되지 못했던 민족시집 <그날이 오면>, <상화와 소월>, <육사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간행되고, <문학원론>, <창작방법론> 등 좌파문학이론서가 더불어 출판되던 해방기의 상황이 그 한 거울이 될 수 있으리라.

**‘통일문학연구소’ 등 기관설립 제안**

흔히 새도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잘 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통일시대의 문학은 분단시대, 나아가 일제 강점기에 미처 청산되지 못하거나 극복되지 못한 쟁점들이 날날이 규명되고 토론·토의돼야 한다.

우리 문학사는 ‘한국문학사’ 만도, ‘조선문학사’ 만도 아닌 새로운 차원의 민족문학사가 전개되고 기술돼야 한다. 문학의 핵심이라 할 세계관의 문제와 창작방법론 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활성화해야 한다. 오랫동안 암암리에 또는 명시적으로 작용해왔던 각종 규제나 금기가 완전히 해제되어야 한다. 불온시되거나 역으로 우상화되었던 작가·작품들의 실제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와 문단이 주체가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통일문학연구소(가칭)같은 기관이 설립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민족문학사의 올바른 복원과 통일시대의 올바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이 자세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민족문학사의 올바른 정립과 방향모색은 그대로 민족정신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확정하는 결정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